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제1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내일 종강

로마서강해 · 전통 문화 등 과제 다뤄

지난 9월 2일에 개강하여 10주간 매주 월요일에 진행해 온 제 10학기 목회자세미나가 내일(4일) 서울 강남 YMCA 대강당에서 종강을 한다.

내일 수료식에서는 10학기를 모두 수강한 목회자들을 격려하면서 수료증을 수여한다. 또한 한남 기독교실업인회(CBMC)의 후원으로 마련한 음식으로 조출한 종강축하연도 가질 예정이다.

제 1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는 "복음과 문화: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한국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가는데에 교회는 어떻게 급변하는 세대의 물결을 정화하고 헤쳐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신학적인 방법으로 찾고자 함이었다.

이번 학기 제 1교시 강의는 이종윤 목사의 로마서 강해로 진행되었는데 로마서 10장과 11장을 주제로 맞추어 심도있게 설교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한편 근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빈야드 운동에 대한 특

별 강의도 있었다.

제 2교시 강의는 목회자 윤리, 향락적 사회현상과 윤리적 위기, 환경운동, 소비문화와 한국경제, 전통윤리와 기독교 신앙과의 문제, 한국교회에 증가하고 있는 명의상 교인의 문제, 예배 의식과 교회력, 세계복음화 문제 등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다루었다.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신앙을 가진 국내외 석학들의 특강을 통해 대안을 함께 연구하고 기도하였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학기 등록자는 688명이며, 이번에는 학기를 수강하고 수료하는 목회자는 총 58명으로 이들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동문회원이 된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은 1992년 3월에 개원하여 지금까지 10회의 목회자신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 등록된 연인원은 6,881명이다. 목회자신학세미나는 지속적인 말씀연구로 현대교회 목회방향을 새롭게 조명해 주는 영향력있는 세미나로 평가되고 있다.

비전2000운동



기도하고



전도하고



상도 받고



계속되는 행진: 전도

부서별 노방전도

기도와 전도운동인 '96 비전2000운동 다섯번째 주일인 오늘은 부서별로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교회학교와 찬양대의 전도대상 지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다음 주일 I · II · III 예배 시에는 교구별 노방전도가 실시된다.

태신자카드

태신자 카드를 제출한 성도는 자신의 태신자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기회 닿는대로 태신자와 만나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인도하도록 힘써야 한다.

아직 카드를 제출하지 못한 성도는 주변에서 대상자를 찾아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다락방, 전도회 모임 후나 심야전도단 등의 활동에 동참하여 전도할 수 있다. 태신자 카드는 이 운동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접수받는다 (태신자 명단은 3면).

▼ 부서별 노방전도 담당지역

교회학교	전도대상 지역	찬양대
유년부, 초등부, 사랑부	교회 뒷편, 보람은행 ~ 영동사거리	임마누엘
중등부, 소망부	제일은행 뒷편 ~ 논현국민학교 주변	가브리엘
탁아부, 유치부, 새가족부	영동시장	
고등부, 장년부	제일생명 ~ 강남역	할렐루야
대학부, 청년부	노보텔, 삼정호텔 부근	

금주의 '96비전 2000운동

- ▶ I · II · III부 예배 후: 노방전도(부서별)
- ▶ 찬양예배 후: 전교인 합심기도회
- ▶ 매일 오전 5시 30분: 비전2000 새벽기도회
- ▶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 다니엘 기도
- ▶ 매일: 연속기도회
- ▶ 각 모임 후: 노방전도, 잃은 양 찾기(부서별 장기결석자 명단 제출)
- ▶ 8일(금): 금요기도회(주관부서: 7·8교구, 마리아전도회, 탁아부, 유치부, 베들레헴 찬양대)
- ▶ 8일(금): 심야전도(금요기도회 후)

지상
설교

교회의 특성 (V)-연합

이종운 목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17:20 - 23)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신 '기도장'이다. 교회설립기념일을 앞두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교회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의 다섯번째 특성으로 연합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기쁨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리는 성경 말씀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선교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안팎으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성경 말씀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를 바로 가질 때 진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1. 연합의 종류

(1) 구조적 연합

교회를 보면 교회가 정치적인 권력이나 경제적인 부를 누릴 경우,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힘을 가졌을 때 가장 타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구조적인 연합을 이룰 때 그것은 결국 바벨탑을 쌓는 것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며 세상에 도전하고 교권주의를 앞세우는 구조적 연합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2) 일치된 연합

일치된 연합이란 자기들과 비슷한 모양의 사람들과 연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의식이 똑같아야 신앙이 같다고 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지 않다고 해서 연합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실수요 인간의 좁은 생각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구조적인 연합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소위 자유주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일치된 연합을 하려는 사람들은 보수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은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적대시하며 어떤 면에서는 자유주의보다도 더 무서운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3) 영적 연합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21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연합은 영적 연합(spiritual unity)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 연합

을 이룬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인 연합은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쁨과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한 영적인 연합은 목적과 방향과 소원과 참여자의 의지가 같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고전 12장4-6).

2. 영적 연합의 조건

(1) 형제와 자매

신약은 교회를 여러가지로 설명하는 가운데 특히 가족관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요 자매입니다(벧전 1:22, 히 13:1).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피차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공동 전선을 펴야 됩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부모는 원치 않습니다. 형제가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할 때에도 형제를 향해 대항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형제간에는 어떤 경우든 다투는 일을 피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연합을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 성도의 교제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성경은 교제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함께 나누는 것(sharing something),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having something in common)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 지체

우리의 몸에는 여러가지 지체가 있는데 이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불평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위치를 정해주시고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체는 기능의 다양성과 상호의존적임에도 불구하고 종속적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몸의 지체들은 모두가 주님의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있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으로서 관계를 바로 맺고 바른 교제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체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왜 나는 손이 되었는가 하고 한탄하면 안될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자기의 위치에서 제 구실을 할 때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인이 왜 그런가, 교회도 싸우는가’라고 하지만 사실 죄인들이 모인 곳에서 그래도 회개하고 이만큼 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약점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교회 안에서 형제와의 연합에 힘쓰는 자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설립 제5주년 기념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요한복음 17장을 암송하는 전교인성경암송대회 본선이 11월 8일(금)로 다가왔다. 각 부서의 예선은 7일(목)까지 마치며 본선에서 뽑힌 3명은 다음 주일(10일) 찬양예배 시 최종결선을 치르게 된다.

제 10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마치며

“한국교회에 참회의 눈물을”

“첫사랑의
뜨거움
못잊어”

이만호

(인원총연합회 목사)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처음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시작 할 때의 열정과 세미나장에 넘 치던 열기를 잊을 수 없다. 그 때 문에 나는 5년간 10학기 세미나에 개근을 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활화산과 같이 폭발할듯하던 열정이 조금 식은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들곤한다. 제 2교시가 되면 자리를 뜨는 몇몇 참석자들에게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러한 모습부터 갱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마음속으로 외치게 된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듯한 달변의 강의보다는 영적인 도전을, 높아지는 귀보다는 가슴을 찢고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의 열망을 이 자리에서 얻기 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소원만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현시대에 강한 영적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고 믿기에 좀더 많은 영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한국교회의 회개의 불씨가 되는 강한 바람이 일어라 하겠다. 이제까지의 모든 일에 대해 한국교회갱신연구원과 서울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첫사랑의 뜨거움을 잊지 말고 더욱이 한국교회를 향한 중대한 사명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계속해 주길 바란다.

나 개인적으로는 이종윤 목사님과 서울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확신한다. 욕심을 부린다면 교회 갱신과 개혁에 대해 좀더 강한 의지를 가지기를 바란다.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지고 녹아지는 역사가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신학세미나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눈물없는
한국교회
갱신없다”

차명숙

(헤브론교회 목사)

이종윤 목사님의 강해를 듣노라면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마지막 때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시간 시간이 은혜의 도가니요 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목회자신학세미나가 열리는 날이면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게 되는데 이렇게 한 지가 벌써 5년이 되었다.

사실, 월요일마다 세미나에 참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심방하랴, 말씀 준비하랴, 교

회 행사들을 돌아보랴... 일본 일초가 아쉽고 가까운 시간이지만 힘든 시간들을 쪼개고 쪼개어 세미나에 할애하여 참석하면 돌아갈 때 뜨거움과 충만함이 나머지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기에 충분한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어렵지만 참석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간에 지내면서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통회자복하는 곡성이 커지도록 뜨거운 시간이 좀더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목회자들이 어디가서 소리내어 기도하며 마음속의 것을 토설할 수 있겠는가? 이 시대 목회자들의 갈급함을 채워주며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세미나 현장이 되었으면 한다.

뜨거운 찬송과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받아 이전보다 더 강한 폭포수같은 주의 성령의 임재를

를 체험하는 세미나가 계속 되길 기대한다.

“시간을
쪼개 얻은
충만함”

장영자

(임마누엘교회 목사)

잘 못되어가고 있는데 꾸짖는 사람조차 없다면 우리는 슬퍼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개혁과 갱신을 부르짖으면서도 올바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먼저 우리 목회자들의 탓으로 돌려야 할 것 같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신학세미나가 10학기째 진행되는 동안 이제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전국교회에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수백명씩 모이는 이 세미나는 목회자들에게는 중요한 모임이 되어 버렸다. 그러니 뼈속까지 사무치는 말씀과 함께 현대 교회의 목회자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에 대해 눈물이 나오도록 꾸짖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눈물없이 갱신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제는 ‘학문적 비판중’에 걸린 목회자가 아니라 사랑 베푸는 데에 불구자와 같았던 목회자들이 깨어지고 깨어져서 눈물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깨우쳐 주길 바란다.

주님, 이 생명을 구원에 주옵소서!

’96 비전2000운동 태신자 명단 ④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이종윤	이필우 홍영제	강신덕	심무용 김연옥 이만길	윤봉준	임병수 안백은 김천수
위성남	위지환 김윤제 위성욱	함송현	이일홍 이한용 이광용		임귀순 윤봉환 허지만
	위성운 홍기명 최영숙	김관수			원상언 김영철
	윤재현 위영수 위성순	김영준	장직운	조정호	조준해 장동숙 조복행
	위에경	이태원	이덕순 김병순 김중성		강봉래
차복녀	유희동 아명석 조연성		이태순 이태관 박경희	박명석	최명자
	나주영 나유경		백주현 이태자 김정수		
김수원	기영서 한문관 김요원		이결순 유원열 이복동		
다음주에 계속					

11월 행사 게시판

일자	행사
3일	교회학교별 노방전도 교회학교 교사 헌신예배
3 ~ 7일	암송대회 예선(부서별)
4일	제 1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종강
8일	전교인 암송대회 본선(오후 8시)
10일	교구별 노방전도 전교인 암송대회 결선(찬양예배 시)
12 ~ 13일	'97 신입서리집사 면접
17일	전교인전도대행진 추수감사절 및 교회설립기념 감사 찬양예배(찬양예배 시)
20 ~ 21일	'97 신입서리집사 교육
24일	추수감사절 및 교회설립기념주일 전교인 만남의 주일 감사예배 및 성찬식(I · II · III 예배) 떡잔치(I · II · III 예배 후) 사진전 장로장립 및 취임식(찬양예배 시) 선교사 파송식(찬양예배 시) 비전2000운동승전보고 전도상 시상식(찬양예배 시)
12월 1일	11월 새가족환영회

서울 강남노회 제 19회 정기회

서울 강남노회 제 19회 정기회가 11월 5일(화) 소망교회당에서 열린다. 우리교회에서는 이종윤 목사를 비롯한 부목사 전원과 김광신 · 오정수 · 노문환 · 정병무 · 김태기 장로가 총대로 참여한다.

강남노회 부목사세미나

서울 강남노회(노회장 이수종 목사) 산하 부목사들을 위한 특별세미나가 11월 1일(금) 우리 교회당에서 개최되었다. 18개 교회 37명의 목회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 세미나에서 이종윤 목사는 "창조적 목회와 부목사"라는 제하의 강연을, 김기태 목사(강남노회 부노회장)은 "부

교역자의 목회실천방향"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했다.

중등부 중창부문 은상 수상 강남노회 중 · 고등부 음악제

중등부는 서울강남노회 중 · 고등부 연합회가 주최한 제 9회 음악제에 참가하여 중창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청년부 총회

청년부는 지난 주일 제 4차 총회를 갖고 회장에 홍순곤 군, 부회장에 문희정 양을 각각 선출했다.

대학부 총회

대학부는 오늘 새 임원을 선출하는 정기총회를 집회시간에 가진다.

■ 목회자동정 ■

- * 이종윤 목사는 21일(월)부터 26일(토)까지 말레이시아 칼라룸푸르에서 열린 제 4차 ALCOE대회에서 아시아로잔위원회 동북아지역 의장으로 선임되었다. 또한 이목사는 10월 5일에는 충청남도 개도 100주년을 맞이하여 '자랑스런 충남인'으로 뽑혀 상패를 받았다.
- * 이종윤 목사는 10월 31일 21세기 교단발전정책위원회와 연목회 임원회를 주관하고, 11월 7일에는 고려대학교 동문 목회자회인 교목회 창립총회에서 축사를 하게 된다.
- * 우심화 목사(아세아연합신학원 교수)가 중국 북경대학에서 1년간 연구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우심화 목사는 우리교회 소망부를 지도하게 된다.
- * 박종상 교역사는 11월 5일(화) 소망교회당에서 열리는 서울 강남노회 제 19회 정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1월 24일 우리 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

'96 비전2000운동 기도제목

-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전할 기회, 담대함, 지혜를 주옵소서.
-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 복음 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하여 주옵소서.
- 잃은 양을 찾게 하옵시고 각 기관과 다락방마다 배가(倍加)되게 하옵소서.
-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될 예배당 건축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북한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 우리 교회와 농어촌 자매교회, 우리의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

■ 제 1회 한국교회갱신을 위한 신학심포지엄 ■

- 때 : 1997. 1. 20.(월) ~ 22.(수), 2박 3일간 · 곳 : 광림수도원
- 주제 : "한국교회 갱신과 성장"
- 강사 : 이종윤 · 김상복 · 빅종순 · 이선희 · 김호식 · 김학중 목사
- 참가대상 : 전국교회 목회자
- 주최 :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회(☎ 3426 - 4236)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평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L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목회자세미나와 한국교회 갱신을 위하여
- 진리로 하나되는 교회가 되도록
- 11월의 교회행사를 위하여
-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